

성대 가성 낭종과 낭종성 용종에서 음성위생교육의 효과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

여진하 · 윤영선 · 손영익

배경 및 목적

성대의 가성 낭종이란 점막하 성대 낭종과 그 형태는 유사하지만, 진성 낭종과는 달리 피막이 없고, 국소적으로 수포성 또는 삼출성의 투명한 액체가 점막하 고유층에 모여 있는 병변으로 소개되고 있다. 하지만 아직 그 진단기준이나 병인, 치료 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대 가성 낭종(pseudocyst)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낭종성 용종(cyst-like polyp) 간에 음성위생교육의 효과를 비교하여 보고자 하였다.

방 법

본원에서 2009년 이후 후두스트로보스코피 검사를 통해 가성 낭종으로 진단받고, 음성위생교육을 받았으며, 그 이후 추적관찰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인 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반투명한 장액성 액체가 점막하층에 집적되어 있는 pseudocyst 군 6명과 점막하 낭종과 용종의 구분이 모호한 cyst-like polyp 군 6명으로 분류하여 음성위생교육의 효과를 비교

하였다.

결 과

Pseudocyst군은 6명 모두 여성으로 평균 연령은 33세였다. Cyst-like polyp군은 남자 2명, 여자 4명으로 평균 연령은 50세였다. Pseudocyst군은 6명 모두에서 음성위생교육의 효과가 없었던 반면 cyst-like polyp군은 6명 중 2명에서 병변의 호전이 관찰되었다. 하지만 증례의 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는 확인할 수 없었다.

결 론

성대의 가성 낭종은 음성위생숙지의 보존적인 방법보다는 수술적인 중재가 더 중요한 일차적인 치료법으로 생각되는 반면, 낭종성 용종은 음성위생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초기에 가성 낭종과 낭종성 용종의 정확한 감별진단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.

중심 단어 : 성대 가성 낭종 · 음성위생.